

##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4)

### - 아산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아산시(牙山市)는 1914년에 온양군·아산군·신창군이 통합되어 아산군이 되었고, 1986년에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온양시와 아산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도농복합시로 다시 통합되어 아산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아산시의 경역은 아산·온양·신창으로 나뉘어 있었다.

아산(牙山)은 백제 때의 지명 아술(牙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의 경덕왕 때 음봉현(陰峯縣) 또는 음잠현(陰岑縣)으로 개칭되어 탕정군(湯井郡)의 영현(領縣)이 되었으며, 이 음봉현을 고려초에 인주(仁州)로 고치고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에 소속시켰으며, 뒤에 아주(牙州)로 고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아주를 아산(牙山)으로 고치고 감무 제도를 폐지하면서 감무 대신 종6품 수령인 현감이 부임하였다. 세조 4년(1458)에는 한때 아산현을 혁파하고 그 땅을 온양·평택·신창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세조 10년(1464)에 다시 아산현으로 복구시켰다. 또한 연산군 11년(1505)에는 아산현이 경기도에 이속되었다가 중종초에 다시 충청도에 소속되었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소속 아산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896년 충청남도 아산군(4등군)이 되었다.

온양은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후 문무왕 11년(671) 탕정주(湯井州)로 승격되었다가 신문왕 1년(681)에는 다시 탕정군으로 고쳐 웅주(熊州)에 예속시켰다. 고려시대에는 940년에 탕정군을 온수군(溫水郡)으로 개칭하였고,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에 예속시켰으며,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4년(1414)에 신창과 병합하여 온창(溫昌)이라고 개칭하였다가, 태종 16년(1416)에 다시 나누어서 온수라 하고 종6품의 현감을 두었으며, 세종 24년(1442)에는 세종의 온천 행행 후 온수현을 온양(溫陽)으로 고치고 종4품의 군수가 부임하는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온양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온양군(4등군)이 되었다.

신창은 백제 때 굴직현(屈直縣)이라 하였고,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경덕왕 16년(757)에 기량현(祈梁縣, 또는 祁梁縣)으로 고쳐 탕정군의 영현이 되었다. 기량현은 고려초인 태조 23년(940)에 신창현(新昌縣)으로 고치고, 탕정군도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쳐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에 소속시켰다. 공양왕 3년(1391)에 이 현 서쪽 장포(獐浦)에 성을 쌓고서 당성(塘城)이라 이름하고, 부근 주현(州縣)의 조세를 이곳에서 수납하여 해상으로 서울까지 수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곳에 만호 겸 감무를 두었던 것을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1년(1392)에 만호를 없애고, 태종 14년(1414)에 온수와 병합하여 온창이라 하였다가, 태종 16년(1416)에 다시 나누어 온수현과 신창현으로 하고 종6품의 현감을 두었다. 1895년에는 전국의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홍주부 소속 신창군이 되었다가,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신창군(4등군)이 되었다.